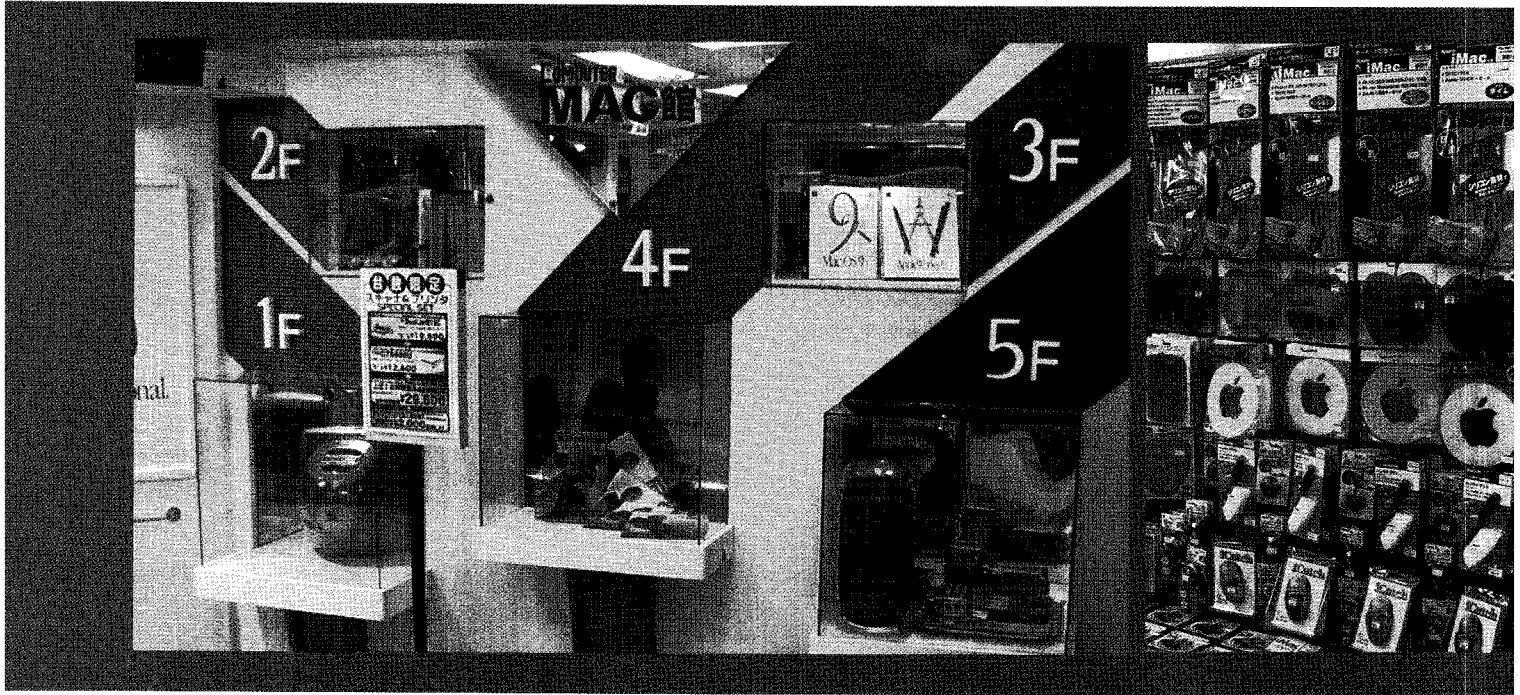


KICRA NEWS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매킨토시 전문 판매점 라옥스 매킨토시관

아키히바라에 위치한 라옥스 매킨토시관은 일본 최대 규모의 맥 전문 판매점으로, 1층에서 5층까지 각 층마다 다양한 맥 관련 제품들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해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맥 전문 판매점 중 규모는 물론 서비스조차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하는 일본의 라옥스 매킨토시관을 방문해보자.

취재/사진 · 김수동 맥미당 객원기자

지 리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한국의 용산 전자 상가와 비슷한 일본의 아키히바라(秋葉原)에서 용산 전자 상가와 다른 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자주 눈에 띄는 맥 관련 매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키히바라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라옥스 매킨토시관(이하 라옥스 맥관)은 5층 건물 전체에서 맥과 관련된 상품만 전시 및 판매하는, 일본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맥 전문 판매점이다. 그래서인지 라옥스 맥관의 안내를 담당했던 엔도 매니저도 우스개 소리로 일본의 맥 전문 판매점 가운데 엘레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모두 갖춘 매장은 이곳뿐이라며, 라옥스 맥관에 대한 자랑이 대단하다. 이쯤되면 과연 라옥스 맥관이 일본 최고 규모인지, 그리고 서비스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둘러보자.

아이북과 아이맥, 그리고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1층 매장

라옥스 맥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전시물은 라옥스 맥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고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이 어느 층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우선 1층에서는 아이맥과 아이북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체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악세사리 등도 5색 마우스 패드부터 아이북 전용 가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었다. 그밖에 아이맥과 아이북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가 전시되어 있었고,



- ① 라옥스 맥판의 현관 입구
- ② 아이맥 및 아이북 관련 악세사리
- ③ '복두의 권'을 기반으로 한 타이핑 소프트웨어인 '격타 2'
- ④ 아이맥 및 아이북 관련 주변 기기
- ⑤ 각종 파워북용 가방
- ⑥ 이벤트 상품인 고급 자전거
- ⑦ 다양한 케이블 제품
- ⑧ 아이맥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아이서브

아이맥 전용 우퍼인 아이서브(iSub)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USB 포트를 지원하는 저장 장치를 비롯해 다양한 입/출력 장치 역시 전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1층 매장은 아이맥이나 아이북을 구입하려 온 사용자가 다른 관련 제품을 한 자리에서 모두 살 수 있는, 윈스탑 쇼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맥의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 구입 후 바로 서점에 들러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기서는 맥 입문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맥 관련 무크지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밖에 컴퓨터와는 별 상관없지만, 애플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생활 관련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어 애플 마크에 매혹되어 있는 맥 사용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었다.

맥 관련 서적과 악세사리 등을 취급하는 2층 매장

1층을 모두 둘러본 후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맥을 취급하는 전문 매장다운 인테리어를 볼 수 있었는데, 느낌이 마치 백화점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건물 내의 인테리어는 아웃소싱된 별도의 인테리어 회사가 상주하면서 담당한다는 엔도 매니저의 설명에, 과연 대규모 판매점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층 매장은 주로 맥 관련 서적과 악세사리, 소모품 등을 취급하는 곳이었다. 맥 관련 서적들은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인터넷, 네트워크 등 맥 분야에 적합한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소모품으로는 프린터의 잉크나 저장 매체의 미디어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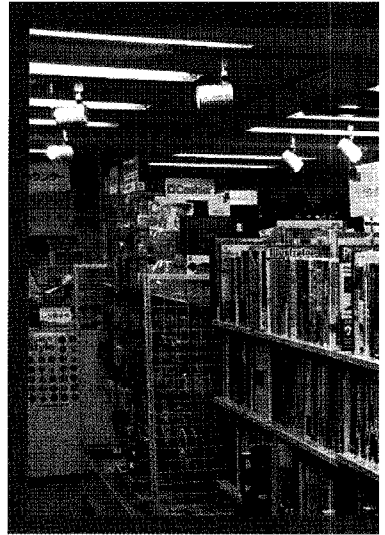
2층 매장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다양한 맥용 청소 도구들로, 화면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비롯해 CD나 DVD를 청소하는 클리너와 본체를 닦는 액체, 노트북의 화면을 보호하는 커버, 키보드를 보호해주는 커버 등이 한쪽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5색 아이맥 컬러의 청소용 솔이 솔질형과 칫솔형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었다. 그리고 맥용 케이블도 매우 많았는데, 엔도 매니저에 의하면 올드맥의 ADB 케이블부터 최신 파이어와이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KICRA NEWS

한편 최근 2층 매장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아이맥 사용자가 좀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아이맥 스탠드라고 하는데, 이 아이맥 스탠드 코너에는 마우스도 있었으며, 손이 작은 사람에게 적합한 마우스와 왼손잡이용 마우스, 광학식 마우스 등도 사용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최근 정보 통신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컴퓨터 시장 규모는 데스크탑 기종이 절대 우위에 있는 데 반해 일본의 컴퓨터 시장 규모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2층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노트북용 가방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북을 비롯한 파워북용 가방은 30여점 이상이며 전용 어댑터 가방도 전시되어 있는 등 그 종류와 수의 다양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편 2층 매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제품은 바로 전화 어댑터였다. 일반적으로 최근 출시되는 맥에는 기본적으로 모듈러 잭이 포함되어 있어 전화선을 연결할 수 있지만, 건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 콘센트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한다. 여기서는 각 나라의 전화 콘센트에 맞게 제작된 전화 어댑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다.



맥용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3층 매장

맥용 소프트웨어를 전시 및 판매하는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에는 파일메이커 프로와 몇몇 어도비사의 제품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3층 매장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9.0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 공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9.0을 구입한 사용자 가운데 일부에게 고급자전거를 상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다소 특이한 상품에 필자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앤도 매니저는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의미에서 결정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 플랫폼을 막론하고 제일 잘 팔리는 소프트웨어는 아마 타이핑 프로그램일 것이다. 지금도 약 5~6종의 소프트웨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격타 2'라는 소프트웨어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이 소프트웨어는 아마 20~30대의 독자라면 기억하고 있을 '복두의 권'이라는 만화가 배경이며, 주인공인 라이거가 보여주는 환상의 연속 손놀림을 타이핑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것이다. 만약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독자라면 하나 정도 구입할 만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된다. 맥용으로 개발된 MS사의 소프트웨어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다소 낮게 책정된 아이맥과 아이북용 워드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판매된다고 한다.

한편 제작년에 일본에서 발매되어 현재 인기 상승중인 맥용 비아보이스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로 필자가 테스트해보니 외국인인 필자의 어색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인식률을 보여줬다.

그 맞은 편에는 '지구를 걸어보자'라는 큰 포스터가 붙어 있는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구상의 동·식물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사진들을 담은 시디롬 타이틀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밖에 비즈니스와 그래픽, 홈페이지 관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그 수량과 종류가 꽤나 다양해 외국에서 관광온 맥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쇼핑 코스일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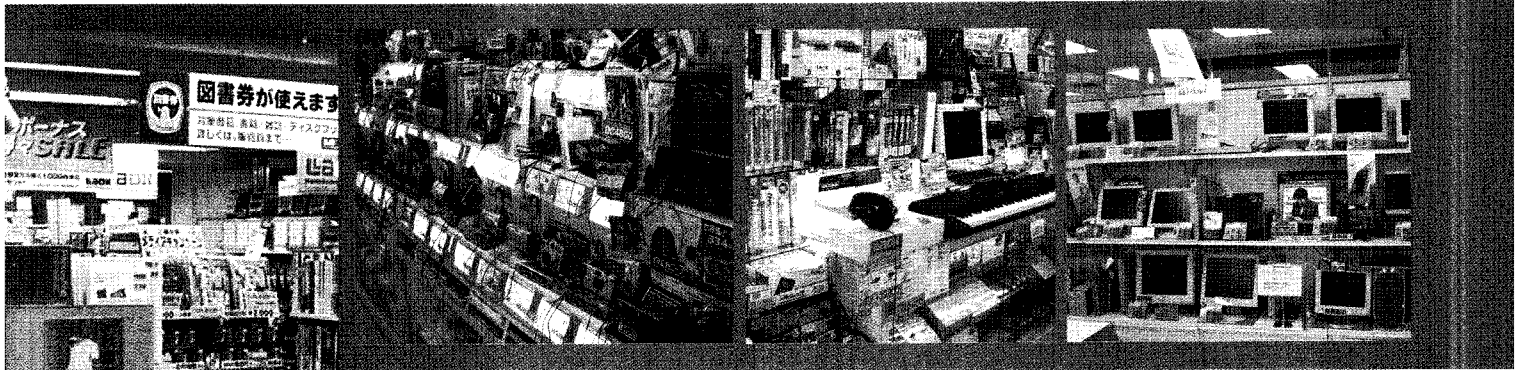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기다리는 제품이 언제쯤 발매되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떤 제품이 매장에 들어오는지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시판(마치 국내의 비디오 대여점처럼)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라옥스 맥관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맥용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4층 매장

4층 매장 입구에는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엡손 프린터의 홍보 포스터가 있었는데, 국내의 경우 HP가 강세인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엡손과 캐논의 프린터가 잘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DTM(Desk Top Music) 코너를 둘러보았는데, 국내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의 거의 모든 작곡가들이 맥을 이용해 작업하고 있으며 작곡이나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 역시 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종종 유명 음악가도 볼 수 있다고.

또한 한쪽에 MP3 플레이어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전시되어 있었다. 일본의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2백만화소를 넘어 3백만 화소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이 코너에는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전시되어 있지만 역시 3백만화소급의 제품들이 가장 많았다.



- ⑦ 인기 상품인 아이맥 스탠드
- ⑩ 맥 관련 서적들
- ⑪ 제품 발표 시기와 입점 예정 제품을 알리는 게시판
- ⑫ 디지털 카메라 코너
- ⑬ DTM 코너
- ⑭ LCD 코너

일본의 가장 일반적인 저장 매체는 MO 드라이브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다양한 MO 드라이브 제품이 마련되어 있었고 용량 역시 저용량부터 대용량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했다. 다른 저장 장치로는 아이맥의 5색을 채택하고 있는 시디롬 라이터가 있었고 이와 함께 영상 작업에 유용한 70GB의 하드디스크 어레이도 전시되어 있었다.

한편 출력 장치인 프린터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저가용 프린터를 비롯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A1 사이즈 지원 제품까지 다양했고, 소모품인 잉크와 출력 용지도 함께 구비되어 있었다. 입력 장치인 스캐너 역시 일반적인 플랫베드 스캐너를 비롯해 필름 스캐너까지 다양했는데, 이러한 장치를 맥과 연결해주는 케이블들도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일본에서는 프린터나 스캐너를 구입할 때 케이블은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국내와는 다른 점이다.

맥 본체와 네트워크 기기를 다루는 5층 매장

5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는 국내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미쯔비시 모니터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장의 오른쪽에는 액정 모니터가, 왼쪽에는 일반 모니터가 5대5로 전시되어 있어 일본이 국내에 비해 액정 모니터의 수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이 모니터들은 사용자가 직접 비교하면서 구입하기에 편리하도록 크기와 가격별로 잘 전시되어 있었다.

한편 이 매장에는 파워 맥 G4와 아이맥, 아이북, 파워북 등의 본체를 판매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구입하고 싶은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모 제품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PDA와 이것을 맥에 연결하는 케이블 등도 전시되어, 벡타이맨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었다.

마치며

필자는 일본에서 성업중인 여러 맥 전문 판매점을 방문했었지만, 특히 이번 라옥스 맥관을 취재하면서 매장의 규모나 진열된 제품의 수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게다가 40명의 종업원과 20명의 파트타임 근무자, 그리고 연중무휴를 기본으로 매일 밤 9시까지 지속되는 영업 등도 필자를 놀라게 했다. 이런 모든 점들은 물론 라옥스 맥관의 매출 신장을 위한 것이지만, 맥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제품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거의 모든 제품을 사용자가 직접 만져 보고, 프로그램 등은 작동까지 해본 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라옥스 맥관을 돋보이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였다.

일본 맥 전문 판매점을 방문하면 할수록 하루빨리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아니 보다 나은 맥 전문 판매점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